

문화광장



홍정호 한국관악협회 제주지회장

META-JEJU

4년 전, 헤드폰에서 구현되는 되는 스테레오와는 다른 몰입형(Immersive) 사운드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이 궁금증에 대해 서귀포 예술의 전당 오종학 음향감독님께서 Ambisonics Sound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주셨다. 예술가의 관점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호기심과 가능성에 대해 질문과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결론은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소통에 익숙해지면서 예술계 또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그 접점을 찾으려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미술계에서는 NFT(Non fungible Token) Art가 큰 주목을 받았다. 자신의 NFT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아티스트로서 NFT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 등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생산성을 지닌 예술가와 그 작품을 소비하는 애호가와의 연결고리이며 또한 시장이 등장한 것이다. 엘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인 그리암스가 처음으로 이 NFT암호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작품을 팔아 65억원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커다란 이슈가 됐다. 언리얼 게임엔진이 있다. 세계에 가장 진보된 기술 리얼타임 3D 플랫폼이다. 다양한 산업에 걸쳐 창작자들의 최첨단 콘텐트, 인터랙티브 경험, 몰입형 가상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 기획을 제공한다. 누구나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아무 장

가 없다. 할리우드 영화전문가들이 포스트 프로덕션에 사용하는 DAVINCI RESOLVE가 무료인 것처럼 UNREAL 엔지 또한 무료이다. 무료버전이 아니라 무료이다. 많은 이익을 남겼을 때 5%의 커미션을 받는 조건이다. 몰입 가능한 가상세계 구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가상 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의 기술 구현에서 창작자의 자리는 어디인가? 창작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따른 수익구조는 사슬의 연속인 생태계이다. 생태계의 위협은 서로 이어진 연결고리를 흔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상 현실은 예술가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메타버스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흐름과 호기심과 기술 그리고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새로운 것에 대한 판단

이 자신의 경험에 의한 유추라면 그것은 매우 낮고 이질적이게 느낀다. 물론 거부할 수도 있지만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찬사나 다름이 없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 왔다. 메타버스가 즐겁고 재미있는 공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누군가는 여기로 출근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전 세계 사람과 만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가상세계에서의 또 하나의 삶인 것이다. 누군가는 여기로 출근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가상의 제주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기대된다. 더 재미있고 생기 넘치는 가상세계를 기대하며,

열린마당

서귀포in정, 쿼터 점프를 노리다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온라인 시장 광풍장으로 수 많은 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몰도 전국적으로 100여개로 다양화되고 있다. 몇몇 '잘 나가는'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그저 그렇다라고 한다. 서귀포in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탄생했고 혹자는 그런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과연 잘 될까? 유통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존재했던 여러 단계를 하나씩 없애면서 쿠팡송 체제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요즘은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의 성향에 딱 맞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문화 등 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k-한류 붐이 일고 있는 것도 빠른 기초위에 차별화와 새로움의 융합을 통한 신선함을

보여줘서라고 생각한다. 서귀포in정 오픈 4개월 시점에 돌이켜 보면, '당당한 도전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1만4000여 건의 상품을 판매하여 5억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작년 사전 준비작업을 마쳐 발 빠르게 새해 벽두 1월 15일에 론칭했고, 청정·고품질의 콘셉트로 소비 트렌드에 맞춘 온라인 홍보와 제휴 마케팅으로 온라인 시장 영역을 넓혀 왔다. 그리고, 이제 체험관광상품 입점으로 1차산업과 관광의 융복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서귀포in정은 1차산업 의존도가 높은 서귀포시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 탄생한 온라인 시장으로 일정 조건이 맞다면 서귀포 시민(업체) 입점이 가능하다. 본인이 팔출력 일군 제품을 소비자와 직거래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는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규 지자체 쇼핑몰의 한계를 깨부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모델로 서귀포 실 수 있도록 다시금 다짐을 가져보는 시점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지속가능한 복지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노인복지 유니버설 디자인 회의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지속 가능한 복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눈길.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노인·장애·인복지,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주간정책 조정 회의에서 "빠르게 고품질로 가고 있지만,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문. 이어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도시를 조성한다는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점인. 고대로그자 제주 휘발유값 소폭 하락 ○...제주지역 휘발유값이 전국적인 상승세에도 소폭 하락해 감소세가 이어질지 주목. 16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595원으로 3주

가량 이어지던 1619원보다 20원 넘게 하락.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감소, 석유 수요 개선 기대 등의 상승요인과 미국 물가 상승에 따른 급이 인상 우려, 인도 정유사 원유 수입 축소 등의 하락요인이 맞물려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 이태윤기자 마을 이장과 처리상황 공유 ○...제주시가 관내 읍면 96개 마을을 방문, 마을지도자와의 대화를 지난주 마무리한 가운데 433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상황을 공유한다는 방침. 시는 이번 대화 과정에서 각 마을 부녀회장들이 공통적으로 건의했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문제 등은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현장에서 검토결과를 통보. 안동우 시장은 "앞으로도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이장 및 건의자와 함께 처리상황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사설

방역수칙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자릿수로 줄면서 한 자릿수가 아니면 다시 두자리 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역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확진자가 속출하는 위기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않는 다중이용시설이 잇따라 적발돼 걱정스럽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290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 결과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44건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4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2건, 유흥시설 오후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건, 5인 이상 집합금지 8건, 체온계 미비 3건 등으로 나

타났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유흥주점·PC방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해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제주에서 지역감염이 끊이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14명에서 15일 9명에 이어 16일에는 15명으로 다시 두자리수 확진자가 나왔다. 주말을 고비로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제주국제대 운동부를 매개로 한 가족간 감염, 타지역 방문자와의 접촉에 따른 소규모 연쇄감염 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들어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70%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이달에만 20명이 넘고 있어 도민의 불안감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숲·공원의 '적' 덩굴류, 사업 전반 재검토를

제주 곳곳이 무성하게 번식하는 덩굴류로 숲·공원 본래 기능을 잃어 온 지 오래다. 도시 숲과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산림 기능을 회복하려면 덩굴류 제거를 '순위'로 꼽을 만큼 심각하다. 오뉴월 덩굴류의 급번성 시기를 맞아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제거작업으로 도시 근교 숲·공원의 제거능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덩굴류 제거작업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들여 정례 실시할 만큼 산림 보전의 핵심 사업이다. 제주시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사업비 7800만원을 들여 도시근린공원 주요 산책로 주변을 중심으로 덩굴류 제거작업에 나선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사라봉 별도봉을 비롯해 민오름 남조순오름 도두봉 광이오름 산책로 주변 15ha가 대상지다. 덩굴류로 인한 피해는 별도봉 산책로에서도 쉽게 목격된다. 여름철 큰 나무들 널 계곡"이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모를 정도인가 하면 겨울엔 말라버린 앙상한 덩굴류 가지로 경관을 크게 해친다. 덩굴류 제거작업은 도시 공원의 대부분 숲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 대상지와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려 나가야 한다. 올해 사업량 15ha는 너무 적은 규모다. 명목 숲 가꾸기보다 일차적 창출효과도 도모할 수 있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덩굴류 제거작업이 여러 수목의 생장을 촉진하고, 산림자원을 높여 주지만 매년 덩굴류 제거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력이나 기계에 의한 물리적 제거와 약제처리 등의 방법을 비교검토해 덩굴류 재발생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매년 제거한다지만 그 자리에 다시 번식한다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행정은 덩굴류 제거사업의 대상지 확대와 효과검증 등 전반을 재검토, 제대로 추진되게 해야 한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술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리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한강유역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가온식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FTA)기금 우량 품종 경진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제라온(여안), 탐나는봄(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카리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균, 팔삭, 세마봉, 금귤, 당유자, 아미니스, 미니은,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규번호 03-919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중과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독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공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법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양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756-2833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